

# 국토균형발전의 열쇠, 서해안철도 연결의 필요성

## 의정단상

박원중  
전남도의원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확정을 앞두고 전국이 들썩이고 있다. 경기도, 강원도, 충북 등 지자체별로 철도 유치를 위한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으며 정치권에서는 특별법 발의를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철도분야의 최상위 법정 계획인만큼 이번 기회를 놓친다면 5년 후 6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

다수의 기초자치단체가 소멸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현 상황에서 철도망의 단절은 지방 성장을 저해하는 주요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국정목표에도 부합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부권 균형발전의 중요한 열쇠가 될 서해안철도 구축은 사업 타당성 문제 등으로 매번 배제되고 있다.

동·서해안 지역은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지역발전의 기회와 기업 유치 등을 통한 일자리 확대 기회와 같은 발전 가능성을 확보

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하지만 동해안의 경우 포항-삼척 간 동해 중부선 철도 건설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강릉에서 부산까지 전체 구간을 연결하는 동해안선 철도가 올해 말 개통식을 열고 내년 1월 1일부터 운행을 시작할 예정이다.

영동권과 경상권이 일일생활권으로 묶이는 일대 교통의 변혁과 더불어 지역 간 경제적 격차 해소와 국가 물류 효율성 향상을 통한 경제 성장의 핵심 발판되고 있다. 서해안철도 구축이 가져올 지역 균형발전과 경제 성장 등 긍정적인 효과를 예상할 수 있는 매우 합리적이고 강력한 근거인 셈이다.

서해안 지역은 새만금개발, 서남해안 관광지구, 무안국제공항, 신재생에너지 산업단지 구축, 공공기관 이전 등 중대 산업 프로젝트가 예정 및 준비되고 있는 지역이다. 이어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전남도까지 연결되는 해안선 철도망 구축은 서해안 발전에 필수적이다. 이를 통해 서해안 전체의 철도망을 구축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특히 목포에서 군산까지 이어지는 121km의 철도 연결은 서남해안의 발전 뿐만 아니라 전국을 연결하는 국가 철도망의 완성과도 같다. 가장 효율적인 철도 네트워크의 구성과 서해선, 신안산선 등의 기대 효과를 서해안 일부가 아닌 대한민국 전역으로 확산시킬 수 있다.

이에 더해 대규모 산업단지들의 조성

과 맞물려 수도권의 혼잡을 해소하는 수요분산 효과 및 무안국제공항을 이용한 국가 해외 물류 유통능력의 향상 등 국가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연간 300만명 이상의 관광객과 운송물류비 10~15% 절감 등을 기대하며 이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수 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호남권의 기업 유치와 지역 경쟁력 제고 등 정부가 수립한 국정목표에 이보다 더 적합할 수는 없다는 견해이다.

또한 교통 소외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대와 의료, 교육 등의 시설 접근성을 높여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국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게 된다. 이는 지역 주민들의 삶에 직접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균형잡힌 발전을 이끌어 낼 열쇠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는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서해안권 발전의 핵심과제인 서해안철도의 구축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지방소멸과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가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 할 수 있는 중요한 방안이 마련돼야 하기 때문이다.

내년도 발표되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서해안 주민들의 숙원 해소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하고 장기적인 균형 발전을 기대한다.

## 社說

# 지방소멸시대 꼭 필요한 전라남특자도

## 지역주도 발전 위해 설치돼야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주도 발전을 꾀할 수 있는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 요구가 커지고 있다. 전남도에 따르면 특별자치도 설치에 국회, 정부의 관심을 끌어내고, 전국적으로 공론화하기 위한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국회 세미나'가 지난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전남지역 국회의원 10명이 주최하고 전남도가 주관했다.

이날 김영록 전남지사는 "수도권 일극체제로 지방소멸은 심화되고, 국가 경쟁력은 약화되고 있으며, 지방은 권한 부족으로 인구문제 등 시급한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며 "소멸위기 극복에 꼭 필요한 일부 분야라도 선제적 자치권을 확보하는 것이 특자도 설치 목적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 나선 제주와 강원 특자도 모델을 설계한 제주대 민기 교수, 금창호 한국정책분석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대성 전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설명했다. 또 한국지방자치학회 배귀희

회장과 소순창 명예회장 등 지방자치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해 특자도에 대한 공감대를 넓혔다.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은 지방소멸 위기 지역인 전남이 에너지·관광·농어업·첨단산업 등에 대한 정부 권한을 대폭 이양받아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실질적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주요 특례는 저출생 대응을 위한 출산장려책과 농촌활력촉진특구 지정, 신재생에너지 인허가권 이양 등이다. 글로벌관광거점 개발과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공항·항만 국제물류특구 지정, 체류 외국인 대상 비자발급권(광역비자)도 필요하다.

이미 제주특별자치도를 시작해 강원과 전북까지 확대되고 있다. 현재 전남도는 인구 180만 명이 붕괴됐고, 지방소멸이 빨라지고 있다. 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은 특별법을 공동발의했고, 전남시장군수협의회와 전남도의회는 각각 결의안 채택과 특위까지 구성했다. 전남도도 특별자치도 설치당위성과 필요성을 널리 알리며 공감대 확산에 나서고 있는 만큼, 특별자치도 설치는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다.

# 지방세 체납 끝까지 추적 전액 징수해야

## 전국 누적 체납액 4조 원 눈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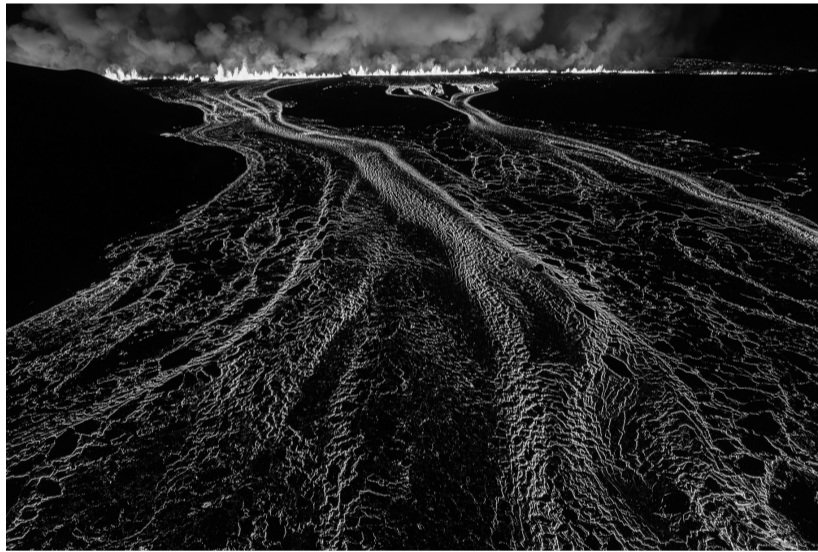
광주시와 전남도가 지난 20일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올해 1월 1일 현재 지방세, 지방행정 제재·부과금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이고 1년이 넘는 체납자가 공개 대상이다. 고액의 지방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행태는 조세 정의를 뒤흔드는 파렴치한 짓이다. 끝까지 추적해 체납액을 전액 징수해야 한다.

광주시의 경우 지난 10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 지방세 명단공개자는 212명(법인 90명, 개인 122명)이며 체납액은 73억 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명단 공개자는 19명(법인 5명, 개인 14명)이며 체납액은 6억 원이다. 전남도 또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270명 중 개인은 160명으로 체납액은 56억원, 법인은 110개 44억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명단 공개자 38명 중 개인이 31명 8억원, 법인 7개 28억원이다. 전국적으로도 신규 체납자가 1만 274명으로 기존 체납자와 합치면 전국의 고액·상습 체납자는 총 6만710

명, 체납액만 3조 9000억여 원에 이른다.

지방세는 자치단체의 안정적인 세입원으로서 재정 운용의 원활을 담당한다. 교육과 보건, 사회복지 등 지역 사회에 필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재원이기도 하다. 그런 재원이 고질적으로 체납될 경우 지역발전은 더딜 수 밖에 없고 재정 분권도 악화될 게 뻔한 일이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광주·전남의 경우 징수할 돈을 받지 못하면 재정 압박이 커질 수밖에 없다. 마땅히 내야 할 세금을 '돈이 없다는 핑계'로 고의로 내지 않는 것은 조세정의에도 역행하는 일이다.

국세는 물론이고 지방세 또한 세금을 부과 받았다면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는 것은 민주시민의 당연한 의무다. 지역 공동체의 혜택을 누리고 그 혜택을 통해 경제적 이득까지 취했으면서 주어진 의무를 방기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체납자에 대해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체납액을 징수해야 한다. 출국 금지나 체납자를 일정 기간 구금하는 감치 제도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사진으로 보는 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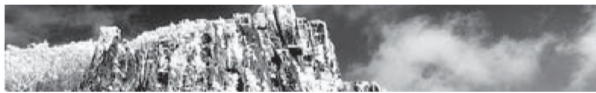
20일(현지시각) 아이슬란드 레이카네스반도의 그린다비크 화산이 새롭게 폭발해 용암이 흐르고 있다. 현지 당국은 화산 폭발 직후 주민과 관광객들을 대피시키고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이번 폭발은 지난해 12월 이후 7번째다.

AP/뉴스시

## 서석대

"맛은 엄마의 추억이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은 그래서 이 세상 어머니의 숫자와 동일하다." 2010년 제작된 영화 '식객 김치전쟁'은 김치를 주제로 한 엄마에 대한 영화다. 식객의 두 주인공 성찬과 장은. 이 시대 마지막 어머니의 손맛이 담긴 '춘양각'을 놓고 숙명적인 대결을 펼치는 이들에게 '진짜 싸움'은 자신의 과거와 엄마, 자신과 화해하는 과정이었다. 영화에 등장하는 123가지의 김치 요리도 결국 엄마로 연결된다. "겨울철 언 땅에 묻어놓은 김장김치의 맛, 1년 365일 먹으면서 한국인의 뇌리에 깊숙이 자리잡은 '엄마의 손맛'에 대한 추억을 되찾고 싶었다."는 게 영화를 제작한 김수진 감독의 설명이다.

"김치는 '빅맥'으로 상징되는 세계화의 상대적 개념이다." 지난 2006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가 '김치지수'를 내놔다. 미국 맥도널드의 '빅맥' 햄버거 가격을 기준 삼아 세계 물가를 비교하는 '빅맥지수'를 대신해 김치찌개 가격으로 각 나라의 통화 가치와 물가를 비교하기 위해서였다. 결과는 놀라웠다. 서울에서 4~5달러에 불과하던 당시 김치찌개 1인분 가격은 스위스 취리히에서 34.20달러, 덴마크 코펜하겐에서는 26.32달러로 조사됐다. "먹을수록 새록새록 깊은 맛", "한국의 역사와 문화가 응축된 공동체 문화"라는 외신의 평가도 이어졌다.



## 김치의 내일

김치는 불과 수년 전까지만 해도 겨울나기의 필수품이었다. 지금도 한국인들에게 김치는 없어서는 안될 식품이다. 항균부터 장 건강 개선, 항염증 등 효능도 뛰어나다. 얼마 전에는 미국의 한 잡지가 그리스 요거트와 스페인 올리브유, 인도 렌틸 등과 함께 한국의 김치를 세계 5대 건강식품으로 선정했다. 미국 영양 전문잡지는 2023년 영양학자 등 75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김치를 올해의 슈퍼푸드 1위에 올리기도 했다. 유산균이 발효되면서 의학과 영양학적으로 효능이 뛰어나다는 것이 이유였다.

22일은 식품에서 최초로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김치의 날'이다. 김치와 김장은 지난 2013년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되면서 K-컬처를 대표하는 K-푸드의 아이콘이 됐다. 미국과 브라질, 아르헨티나, 영국 등에서도 김치의 날을 지정해 김치 먹기를 권하고 있다. 김치의 날에 담긴 숫자는 김치의 재료 하나(1) 하나(1)가 모여(11월) 면역 증가, 항산화, 항비만, 항암 등 22가지(22일)의 효능이 있다는 걸 상징한다. 재료와 자연, 가족과 이웃간의 어울림이라는 의미도 담겨있다. 4번째 맞는 김치의 날, '저렴한 건강보험'이라는 외신의 평가처럼 슈퍼푸드 1위에 오른 김치의 내일을 응원한다.

이용환 논설실장

<b>全南日報</b>	사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용환	편집국장 박성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	대표전화	(062)527-0015	경영지원팀 (062)510-0421
	기사제보	(062)510-033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문화체육부 (062)510-0351
	취재1부	(062)510-0380	온라인뉴스부 (062)510-0461
	취재2부	(062)510-0394	사진부 (062)510-0391
www.jnilbo.com m.jnilbo.com	정치부	(062)510-0340	
구독료 월 1만5천원 1부 8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FAX (062)510-0436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